

**가을 바이칼호수 트레킹**  
**+알흔섬+이르쿠츠크 5일**  
 9월 22일 출발  
 스포츠동아 독자 특별행인      문의:02-730-2270

## 고흥 이야기가 있는 마을 (시즌 2)

### 7 점암면 안치마을 '두꺼비와 아기 뱀'

오랜 세월 척박했던 땅. 그만큼 사람들의 세상 살이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강하고 질긴 태도와 능력으로써만 세상은 살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는 쌓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산한 삶을 이어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밝고 슬프고 아름답고 비극적이어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설화는 그렇게 오래도록 쌓여 전해져오고 있다. 전남 고흥군을 다시 찾는 이유다. 지난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고흥의 이곳저곳 땅을 밟으며 다양한 이들을 만난 스포츠동아는 올해에도 그곳으로 간다. 사람들이 전하는 오랜 삶의 또렷한 흔적을 확인하며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려 한다. 매달 두 차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는다.



고즈넉한 풍경의 고흥군 점암면 안치마을은 서로를 구한 뱀과 두꺼비의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안치마을 뒷산 능선은 뱀의 형상을 닮아있다.

고흥(전남)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 고흥 점암면 안치리 안치마을 가는길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 아버지, 그 두꺼비 잡지 마오...은혜 깊은 아기 뱀

아픈 엄마 약초 구하다 바위 틈에 낀 아기 뱀 지나가던 두꺼비, 원한도 잊고 목숨 구해줘

아기 뱀 간절한 애원에 마침내 하늘도 감동 뱀 머리 능선...일제 때 정기 없었다고 훼손

고흥군 점암면 안치리의 안치마을은 농기계 소리와 가축들의 소리로 주민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다. 이마저도 없다면, '고즈넉하다'는 말 외에 딱히 어울리는 표현이 없을 정도로 고요하다. 아마도 마을 뒤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영향이지 않을까. 멀리서 보이는 마을 뒷산의 능선은 끊어짐 없이 길게 늘어서 있다. 마치 뱀이 소리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기어가는 듯 하나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뱀 모양의 산이 마을을 지키고 있어서인지, 이곳에서 뱀은 기피 동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뱀이 출몰한 장소를 명당으로 여길 만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안치마을에서 전해져오는 '서로를 구한 아기 뱀과 두꺼비'의 설화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 ●두꺼비를 향한 아기 뱀의 은혜

아기 뱀은 안치마을 뒷산을 오가다 바위틈에 몸통이 끼고 만다. 마침 지나가는 두꺼비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두꺼비는 자신의 동생이 뱀에게 잡아먹힌 사실이 떠올라 뱀을 무섭게 노려보며 다가간다.

이 모습에 뱀은 자신을 구해주려 오는 줄 알고 "고마워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라고 말한다. 뱀의 애절한 눈빛에 두꺼비는 순간 멈춘다. 아픈 엄마를 위해 약초를 찾아 봉변을 당한 어린 뱀을 내버려두지 못하고 결국 구해준다. 뱀은 "부디 행복하시고 자선 대대로 복을 누리세요"라고 감사함을 표현한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아기 뱀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엄마를 낫게 하는 방법은 오직 두꺼비를 먹어야 한다는 것. 방금 전의 두꺼비를 잡으러 가야겠다는 아빠 뱀의 말에 아기 뱀은 "그 두꺼비만은 잡지 마세요. 저를 구해준 두꺼비를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린다.

아기 뱀의 간절함이 통한 결까. 두꺼비가 앉아있던 바위 앞까지 물이 차올라 아빠 뱀은 건너가지 못했다. 아기 뱀은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뒷산에 앉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설화의 존재를 알고부터 마을 주민들은 산

능선이 시작되는 점을 뱀의 머리 부분이라 보고 좋은 기운이 산 전체로 퍼져간다고 믿으며 삼고 있다.

#### ●마을 깊숙이까지 무력을 휘두른 일본

그러나 안타깝게도 뱀의 머리 부분이라 여기는 부분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기를 없애기 위해 뱀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훼손했다고 한다. 흔적이 없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들에게 산은 그저 '뒷산'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안치마을 이장 김판태(76) 씨는 "마을에서는 산의 가장 낮은 지점을, 설화처럼 뱀이 바위에 끼어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근을 중심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어 풍수지리에 따라 명당으로 여겼다"고 했다. 현재의 안치마을 앞 도로를 과거 바다를 간척해 국도 15호선이 깔려 있다.

김 이장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은 뱀이 끼어있던 그 장소를 뒷자리로 눈독을 들였다고 한다. 김 이장은 "뱀이 바위에 끼어있는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라 특이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며 "뱀이 이렇게 긴 때는 이 산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

고 생각해 꺼려하는 동물인데도 제사도 지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낫쌀를 특정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어서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이 모습은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김 이장은 "당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분명한 장소를 마음속으로만 신성시 여기는 것뿐이었다"며 "하지만 일본인들은 마을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데는 쇠말뚝 박고 잘라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고흥(전남) |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 설화 참조 및 인용: '서로를 구한 아기 뱀과 두꺼비' 안오일, '고흥군 설화 동화' 중

#### 2 설화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민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

## 미식축구는 뇌손상의 스포츠?



**Sports & Medical Story**  
 이준우 프로야구 LG트윈스 필드닥터  
 한림대 성심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뇌손상 반복...만성 외상성 뇌병증 유발 기억상실·판단력 저하 등 퇴행성 질환 췌아우처럼 최악의 경우 자살시도도

2012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평화롭던 마을에 한밤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소리가 난 곳은 대저택. 널브러진 권총과 함께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사인은 권총자살.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주니어 췌아우로 밝혀졌다. 그는 미식축구(NFL) 샌디에고 차저스의 전설적인 스타였다. 1990년대 최고의 라인백커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스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많은 스포츠팬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식축구는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미식축구는

### ●반복적인 뇌손상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 유발

위 사건들의 원인을 연구하던 의학자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바로 뇌손상이었다. 미식축구에서 수비수들의 목표는 단순히 보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쓰러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태클 등 선수들끼리 강력한 충돌은 기본이다. 아무리 헬멧을 쓰고 한다 하더라도, 뇌진탕 등 뇌손상을 줄 만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격한 경기를 10년 이상 하다 보면, 대부분 선수들이 만성적인 뇌손상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기 때 가장 오래 공을 들고 있는 포지션 쿼터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1993년 슈퍼볼 MVP인 트로이 에이 크먼(델러스 카우보이스), 버펄로 빌스 소속으로 팀을 4년 연속 슈퍼볼로 이끈 짐 켈리, NFL 최고의 왼손잡이 쿼터백으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스티브 영(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등이 선수 시절 여러 차례의 뇌진탕 경험과 증상을 언급했다.

실제로 주니어 췌아우의 뇌 조직검사를 해보니 CTE(만성 외상성 뇌병증)가 확인됐다. 이제 CTE는 미식축구계에선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선수노조의 요구로 선수들의 뇌손상 연구가 광범위하게 추진됐고, 많은 연구 결과 미식축구 선수들과 CTE는 깊

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TE는 뇌진탕 등 반복적인 손상을 받은 뇌에서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일컫는다. 권투선수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미식축구 선수들을 중심으로 레슬링, 아이스하키, 권투 등 상대와 몸 접촉이 많은 선수들에게 비교적 흔하게 발견된다. 반복적인 뇌 손상 후 10년 정도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주의력 결핍,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중증이 진행되면서 기억상실, 판단력 저하로 이어진다. 진행성 치매, 운동장애, 언어장애에 이어 최악의 경우 자살시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적인 뇌손상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뇌손상 때 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나마 예후가 좋은 것으로 연구됐다.

#### ●오바마 "나에게 아들이 있다면 미식축구를 못하게 했을 것"

최근 이러한 점을 우려해 미식축구계는 뇌손상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선수들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 규칙까지 바꿨다. 머리 쪽을 향하는 태클을 금지하고,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를 향한 심한 태클도 금했다. 경기 중 충돌 이후, 뇌진탕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일정 프로토콜을 통과하지 못

하는 이상 다시 경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그러나 그라운드에서 들어서면 선수들에게 '뇌손상 예방 규칙'들은 뇌 속에서 사라지는 모양이다. 실제 최고의 운동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펼치는 경기에서 뇌에 손상이 전혀 안 가게끔 태클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뇌진탕을 당해도 증상을 숨기고 경기에 뛰는 경우가 많다. 실제 많은 선수들은 서서히 진행되는 뇌손상보다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릎, 발목, 어깨 등의 부상을 더 두려워한다.

2013년 1월 슈퍼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만약 내게 아들이 있다면, 미식축구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오바마는 말했다. 두 딸만 있는 오바마에게는 아들이 없어 '만약'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그 것도 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은 미국인들이 미식축구와 뇌손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방증해 준다.

8월이 가면 곧 미식축구의 계절이 온다. 미국인들이 지상 최고의 스포츠로 뽑는 미식축구. 이 역사이런 경기 '뇌손상의 스포츠'라는 오명을 벗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